

##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읽고

이화영

충무공 이순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들어보지 않을 래야 않을 수 없는 사람일 것이다. 당장 우리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백원짜리 동전의 뒷면에도 이순신의 그림이 있으며 광화문 사거리를 나가도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우두커니 한복판에 서 있을 정도로 이순신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다. 흔히들 이러한 이순신 장군을 단편적으로 기억 할 텐데, 조선을 구한 성웅, 거북선을 만든 위인 등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많은 역경과 난관을 헤쳐 나가는 그의 고뇌와 노력이 있었다. 나는 이러한 그의 근심과 고뇌의 1604일이라는 시간이 담긴 “난중일기”를 읽고 ‘불멸의 이순신’이라 불리우는 그를 보기도 하였으며 ‘인간적인 이순신’을 보기도 하였다.

“난중일기”를 처음 펼쳐 보았을 땐 당혹스러웠다. 처음 마주한 이순신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간결하고 건조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실함과 용맹함도 함께 있었다. 그의 문체가 그에 대해서 말해주듯 이순신에게는 늘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다. 바로 ‘충효신의’이다.

먼저 충무공에게 ‘충’은 어떤 의미였을까? 인간의 행동 중 가장 거칠고 파괴적인 것. 그중 가장 강력한 형태인 전쟁 속에서 이순신은 수장으로서는 모두를 이끌고 가장 앞장서야 했다. 그렇기에 그가 돌파해야 할 역경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예상 가능하다. 게다가 그는 간신들의 모함은 물론 선조에게는 되려 불신을 받아야만 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 있던 그가 과연 제대로 ‘충’을 행할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기 마련이다. 나는 이순신의 ‘충’이 임금에게 향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난중일기”에서 이순신은 매월 첫날 망궐례를 올리면서도 왕에 대한 충성이나 단심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렇기에 나는 이순신의 ‘충’이 오로지 조선을 위해 행해졌다고 생각한다. 많이들 그에 대해서 견고하고 굳건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러나 이 책을 읽어보면 그는 몸져 누워있는 일이 꽤나 많았으며 온몸이 땀으로 젖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 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철저한 노력파인 것이다. 조선의 안보를 위해 이순신은 자신을 채찍질하며 견뎌온 것임을 느낄 수 있다.

이번에 ‘효’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그의 일기에서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안부이다. 이순신을 늘 어머니에 대해 생각했으며 그 마음은 더할나위 없이 극진하였다. 어머니와 함께 배를 타고 나가 술잔을 기울

이며 기뻐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그의 마음도 절로 기뻐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하여 미어지는 심정이 담긴 글에는 그의 간절했던 목소리가 가장 흔들렸던 때인 것 같다. 이순신은 누군가의 아들일 뿐만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다. 아내의 병이 위중하다는 소식에 전전긍긍하다가 병세가 차츰 악화된다는 소식에 한시름 내려놓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갑작스런 소나기로 아들의 가는 길이 위험하지 않을까 근심이었고 아들이 전사하였다는 사실에 비통함을 술로 달래다 쓰러져 며칠동안 자리보전 하기도 했다. 이순신은 분명 조국의 시련을 극복한 명장이였지만 가족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질 수 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모습이 나의 감성을 자극하였고 나는 그에게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버지인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신의’는 이순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주춧돌이 아닐까 한다. 그는 부하들의 상벌에 매우 엄격한 장군이였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곧장 곤장으로 다스렸고 칭찬은 아끼지 않았다. 이런 공정하고 일관된 태도에서 부하들의 충성심은 더 깊어졌을 것이다. 또한 이 책에는 전사한 부하를 떠나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나와 있다. 이렇게 두터운 전우애는 이순신 뿐만 아니라 군대 모두에게 큰 버팀목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의 강물과도 같은 삶의 이야기를 읽으며 역사적인 큰 사건들을 보는 것도 물론 흥미로웠지만 인간적인 이순신의 모습에 더 매력을 느꼈다. 가령 이순신은 날씨가 정말 좋았기에 업무를 보지 아니하고 집에 머물며 매주 10점을 만들었다거나 전쟁을 치루기 전 점괘를 쳐 보았다는 내용의 일기가 남아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생소하기도 하였고 웃음이 지어지기도 하였다. 또 원균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으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역사적인 사실에 앞서서 나는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솔직하고 날카롭게 감정을 표출한 것에 대해 놀라라웠다. 이순신은 분명 우리와 같은 인간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뇌했고, 가슴아파하였으며 슬퍼하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며 후회도 하는, 그러나 노력하여 상황을 해결하려 한 그런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순신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 그리 멀리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느낀 ‘난중일기’는 그 어떤 소설보다 장황하였으며 긴박감이 있었고 그에 따른 감동도 있었다. 이 책은 역사자료를 뛰어 넘어 문학이기도 하다. 이 책은 한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내게 많은 것을 남겨준 그런 책으로 기억될 것이다.